

하나됨과 나눔

“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 베드로전서 4장 8-9절 >

- 기독교교육주일입니다. 가정교육, 교회교육, 학교교육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부터 특강이 있습니다.
강사: 권혁신목사(새터마을교회) 제목: '수도규칙과 공동체생활'
- 기독교교육주간 새벽기도회는 아침 5시 30분에 모이고, 찬양은 요일마다 방별로 맡아서 합니다.
월(그루터기사랑방) 화(비움사랑방) 수(새싹, 미리내사랑방) 목(따뜻한사랑방) 금(디아코니아사랑방) 토(연령별사랑방)
- 성서일기 범위가 17일(화) 고린도후서를 마치고 읊기로 바꿉니다.
- 공동체운영위원회 39차 정기회의가 오후 4시에 모입니다.
- 평양노회 199회 정기노회가 17일(화) 성암교회에서 모입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조장희 · 이재신 집사 가정 (감사)
서병욱 · 임진숙 집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조이서 청년 (생일 감사)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0 - 42 호

2023년 10월 15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기독교교육주일의 의미를 생각하며

지난 9월 4일은 공교육 멈춤의 날이었습니다. 평일임에도 교사 4만명 이상이 국회 앞에 모여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였고 이에 앞선 9월 2일 토요일에는 25만명 이상 전국의 교사들이 국회 앞에 모여 서이초 교사 추모 및 입법촉구 집회를 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은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짧은 시간안에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현재의 교육은 큰 혼란속에 빠져 있습니다.

매년 10월 셋째주는 기독교교육주일로 지냅니다.

교육하다, 영어로 educate의 어원을 살펴보면 e(밖으로)+duc(인도하다)+ate(시키다)로 '학생이나 아이의 능력을 이끌어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의미인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목표가 더해지면 기독교교육이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한 사람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날, 바리새파 사람이고 유대사람이며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으로 사회적 지위도 정치적인 세력도 그야말로 다 가진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청년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세 번 등장합니다. 3장에 누가 볼까 두려워 밤에 몰래 찾아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대화하고 간 이야기와 7장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을 때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려오지 않자 예수의 꼬임에 빠졌다고 비웃었습니다. 그 때 니고데모가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예수님을 옹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장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 대화하고 예수님의 곁에 맴돌았으며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줍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 다닐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적 위치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후 사도행전에 니고데모의 기록은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했을까요? 아니면 그 믿음을 끝내 지키지 못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표징을 보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답하셨습니다. 보여서 왔는데 볼 수 없다고 하시는 예수님.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들을 버리고 믿음으로 거듭났을 때에야 비로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교육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해야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찾아 온 여러 선교사님들에 의해 발전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도 전국에 120여개의 미션고등학교가 있고 300여개의 기독교대안학교가 있지만 이 땅에 교육은 어렵습니다. 기독교교육주일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한 고민과 기도를 우리 안에서만 그치지 않고 교육으로 믿음을 전하고자 했던 여러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위해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다운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그 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
<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221, 310 / 50

기도 : 이어람 집사

성경 : 고린도후서 8장

제목 : 이미 시작한 선한 일을 마치십시오

1. 내용: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보여준 것처럼
구제헌금을 완성하십시오. (What)

<문단구분>

- 1~5절 <마케도니아 교회의 구제를 소개하다>
- 6~15절 <이미 실행한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 16~24절 <연보 책임자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2. 의미: 복음의 빛을 사랑으로 갚는다. (Why)

- 1)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를 돕고 있다.
- 2) 복음을 전해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다.
- 3) 이 일을 위해서 일꾼을 세웠다.

3. 적용: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자. (How)

- 1)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자.
- 2) 시작한 선한 일을 마무리하자.
- 3) 신뢰받는 일꾼이 되자.

성서일기

어린이사랑방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어린이학교를 다니고 있는 6학년 최시현입니다. 저는 작년에 사랑방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랑방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어린이들이 모여서 함께 놀고 설교 말씀을 나누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서로 더욱 친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이사랑방에서는 설교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해서 한 주간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돌아가며 맛있는 간식을 사와서 나눠 먹은 것도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어린이사랑방에서 했던 놀이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좋았던 놀이는 '도미노'였습니다. 혼자 하면 어려운 것을 같이 해서 더욱 쉽고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쓰러트려도 같이 다시 세우며 협동심을 더욱 배워 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린이사랑방에서 다 같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도 같이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시간에 사도신경을 외울 때 웅얼거리지 않고 전보다 더욱 잘 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어린이사랑방에서 설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설교 시간에 더욱 집중하고 말씀을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린이 주관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했었는데, 조금 떨렸지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가대 찬양을 준비하며 모르던 찬양을 배우고 같이 부르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어린이사랑방에서 하는 모든 것이 대부분 재미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정말 친절하시고 놀 때도 같이 놀아 주시고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사랑방 방모임을 할 때마다 정말 즐겁습니다.

최시현 어린이사랑방 6학년

지체들의 삶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 편 27 : 4
15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골로새서 1 : 13-14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88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갑시다”

마태복음 4 : 1-11
191

설교자
미리내사랑방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312

주님의 사랑이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김병우 정영옥 / 봉헌위원 : 하경임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박민정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이예은 김보경 진시우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자기 백성을 친히 가르치시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교육방식. 교육에서 평가는 중요합니다. 교육을 평가할 때는 그 교육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변화를 보면 교육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온 인류를 위한 구세주로 기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면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균형 있게 잘 성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였습니다.

광야에서의 시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광야로 나가셔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공생애 직전에 받으신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감당하기 앞서서 준비 여부를 확인하는 마지막 시험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미리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받으신 3가지 시험은 모든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사탄은 교묘하게도 예수님의 필요를 다른 방식으로 채울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왜곡시키려고 시도합니다. 육체적인 당장의 필요를 채우도록 유혹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를 추구하도록 유혹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사탄은 결핍을 채워주겠다고 유혹한 것입니다. 결핍에 집중하면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갑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김영동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고구마를 캐습니다. 아주 큰 고구마가 많아서 호미질로는 어려워 이어람선생님이 쇠스랑으로 들어올린 고구마 다발에서 꾸러기들이 고구마를 떼어내고 모으는 일을 했습니다. 옷이 온통 흙범벅이 되고 신발 속에도 흙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고구마가 담긴 콘테이너를 꾸러기들이 힘을 모아 날랐습니다. 생고구마를 깨끗이 씻어 잘라 먹어 보았습니다. 딱딱하고 낫선 맛이지만 먹다보니 나름 맛이 있다고 느끼 나눕니다.

음률놀이 시간에 허수아비 만드는 노래를 듣고 따라부르며 친구들을 허수아비로 꾸며봅니다. 험량한 셔츠를 입히고 모자와 안경을 씌우고 목도리도 감아줍니다. 팔을 벌리고 선 허수아비 친구와 사진을 찍어봅니다.

가을을 느끼려 더 나가놀고 싶지만 10월에 생일을 맞는 친구들이 셋이나 있어 생일카드를 만드느라 바빠서 바깥놀이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생일 카드를 만드는 꾸러기들을 보니 솜씨가 많이 늘었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색깔과 크기의 종이를 내어주면 제법 쓱쓱 멋지고 개성 넘치는 카드를 만들어냅니다. 멋진 작품들이라 만든 친구의 작품으로 남기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지만 받을 친구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학교는 가을을 맞아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하늘은 마음이 시원해질 정도로 파란 하늘을 보여주고 나무들은 녹색 잎들이 노란색과 갈색, 빨간색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때쯤 어린이학교 교무실 앞의 달콤한 냄새는 한 해 동안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어린이들은 도서관 올라가는 길에 떨어진 은행열매들을 터트

배움과 가르침

리지 않게 조심스레 올라갑니다.

도보여행 예행연습을 하며 학교를 한 바퀴 도는데 그 길가 좌우로 넘실거리는 코스모스를 보니 꽃밭을 헤쳐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어린 이들도 기분이 좋은지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웃음꽃을 피웁니다. 학교를 나서며 소풍길을 따라 귀락마을로 갔습니다. 산길 내리막에 처음으로 예행연습에 참여한 어린이가 넘어졌습니다! 당혹스럽고 아파 우는 모습을 보고는 주변에서 격려를 해 줍니다. 용기내어 스스로 옷을 털고 옷을 여미며 걷는 모습에 이번 도보여행도 참 의미 있고 풍성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0월 마지막주에 있을 도보여행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교사 : 권재만 >

멋쟁이학교

이번 주는 모두가 기다리던 테마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회화> <건축> <디자인> <조소/공예> <사진>이라는 5개의 예술 테마를 배우고 경험하기 위해, 5개 모듬이 화요일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멀리 대구까지 내려간 모듬도 있었고, 서울권 안에서 맴돈 모듬도 있었지만, 다녀오고 나서 만난 모두의 얼굴은 한층 밝아보였습니다. 아마 밤이불 속에서도 각자 겪은 모험담을 신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피드백까지 마치고 난 멋쟁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경험과 배움을 다른 멋쟁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보고회를 준비합니다. 어떤 여행들을 보냈을지 보고 듣는 것이 벌써 기대됩니다.

그동안 6학년은 학교에서 지내면서 적막하고 고요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기들끼리의 시간들을 즐기면서도 진로 준비에 몰두하고, 각종 실기나 면접 또는 수시 준비를 이어나갔습니다. 멋진 사람으로 세상속에서 활약할 6학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다음 주는 기독교교육주간 입니다. 하루를 일찍부터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면서, 멋쟁이들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삶이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 교사 : 이어진 >

당직 일기

생활공동체 지체들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돌아가면서 사무실에서 당직을 선다. 오늘은 내가 당직을 서는 날이다.

교육관을 지나 공동체 마당에 들어서니 곱게 물들어가는 나뭇잎에서 가을 정취가 물씬 느껴졌다. 아름다운 풍경에 마음이 훈훈해졌는데 전경희 집사님이 정원 테이블에서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계시자 자연스럽게 같이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전경희 집사님은 생활공동체에 참여한지 오래되지 않으셨지만 공동체를 위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 나도 미래의 우리 모습에 대해 생각이 많은지라 공감을 이루며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법! 집사님의 생각, 꿈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 당장 성과를 거둘 수는 없을지라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뜻을 모으면 소망하는 바를 이룰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응원한다.

점심 무렵에는 잠시 치과에 다녀왔다. 앓던 이를 치료하고 나니 개운한 마음이 들었다. 다시 사무실에 도착했다고 아내에게 전화를 했더니 아내는 정성스러운 도시락을 챙겨 왔다. 평상시 아내가 식사를 챙겨 주지만 배달까지 해서 주니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어 너무 좋았다.

식사 하는 중에 김중필 집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묻고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에 서로 놀라워했다. 어린이학교 교실이 비가 오면 물이 새서 김중필 집사와 서병욱 집사가 최근 며칠 수리를 했고, 오늘 지붕 아스팔트 싱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오늘은 김중필 집사 혼자 일을 하고 있어서 내가 보고 싶었나 보다 생각하고 아브라함 장막으로 가서 함께 그의 일을 도왔다.

누군가는 공동체의 미래를 걱정하며 함께 일을 도모하기를 원하고, 누군가는 공동체의 현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우리 사랑방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하는 이들이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땅에 있는 하늘나라, 정의 평화 기쁨의 삶을 함께 이루어 가리라 굳게 믿으며 당직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루터기사랑방 박태규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재훈 목사

찬 송 : 70, 414

성 경 : 고린도 후서 8장 1~5

말 씬 : 은혜를 바로 압시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이-팔 평화를 위한 기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무장 단체의 습격으로 사로잡힌 인질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포격이 하루 빨리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한국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 <주님의 가족 공동체를 위한 기도>
주님의 가족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역들과 지역 마을에 끼치는 좋은 영향력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공동생활하는 식구들의 건강과 사역자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지체들을 위한 기도>
테마 여행 중인 멧쟁이학교 학생들과 교사의 안전을 위해서, 치료 후 회복 중에 있는 식구들의 건강회복을 위해서

< 생활공동체 소식 >

가을을 제촉하는 비가 내립니다. 이제 진짜 가을의 한가운대를 지나고 있고 곧 겨울이 올 것입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답게 공동체 밭에도 작물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남아 있던 감자를 캐고, 마지막 고추를 따서 소금 절임을 해두기도 하셨습니다. 고구마 줄거리를 말리려고 한 바구니 따오시는 모습을 보니 절로 배가 부릅니다. 이번주에는 각 학교의 고구마 캐는 신나는 일이 있어 있습니다. 공동체 밭이 또 한번 시끌벅적해질것입니다.

밭 작업과 더불어 동그라미 지붕 공사도 한 주간 동안 계속 되었습니다. 애쓰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 장영미 전도사 >